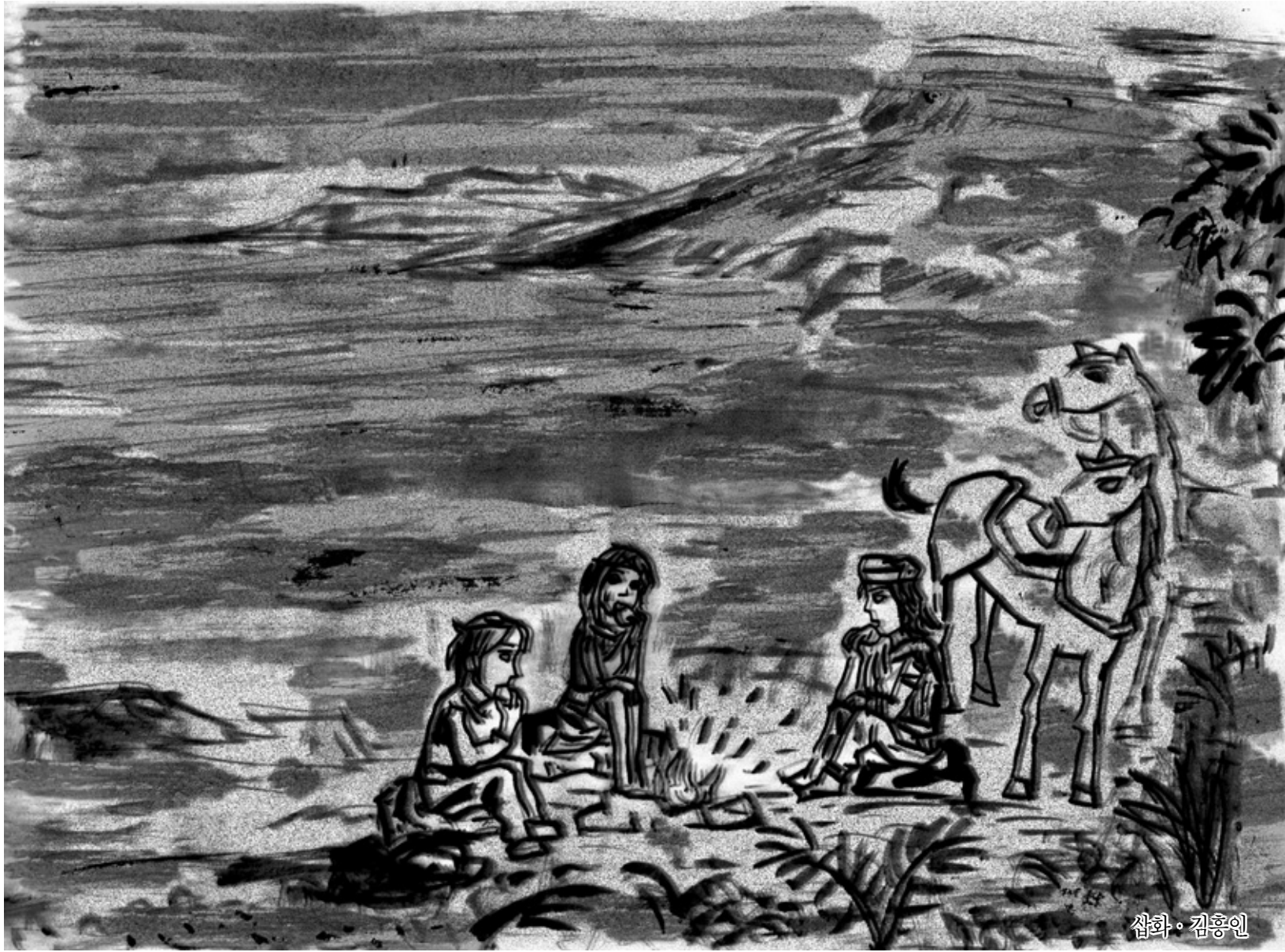


불 꺼지겠다. 왜 또 한숨이야?

수리아의 검-I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철의 산 차크라발라 (1)

공중에 우뚝 솟아있는 카일라사산 정상, 테드모는 루드라가 명상하곤 하는 자리 앞에 서있었다. 그곳엔 여전히 아그니 나무가 서늘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다만 신이 없을 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신의 거처가 있는 공중정원 쪽을 다시 한 번 올려다 봤다. 루드라가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사라지는 일은 간혹 있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떠나 있거나 명상을 쉬는 일은 거의 없었다. 테드모는 루드라가 부르지만 하면 그곳이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이 어디에 있는 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처지였다. 그 때문에 테드모는 보고할 사항이 생길 때마다 난감해 하며 이곳으로 올라와보곤 했다. 지금도 그랬다. 신이 언제 돌아와 있을 지 모를 일이었다. 결국 테드모는 돌아섰다. 아득히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마치 구름 위로 뛰어내리듯 몸을 날렸다.



삽화·김홍인

한편 카일라사산 산의 북쪽, 우윳빛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 혼돈의 대양에는 아난타라는 뱀이 커다란 파리를 튼 채 마치 섬처럼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평소보다 긴 수면기를 보내는 중인 크리슈나가 누워있었다. 아난타의 생김새는 거대한 코브라와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머리를 천 개나 달고 있어서 매우 기이하게 보였다. 아난타는 자신의 그 수많은 머리들을 지붕처럼 만들어 수면기를 보내는 크리슈나를 보호했다. 흔들림 없는 천 상의 눈으로 자신의 주인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런 그의 눈이 드물게 흔들릴 때는 거대한 독수리 모양의 새 가루다가 출현할 때였다. 역시 크리슈나의 새인 그는 아난타를 제외한 모든 뱀의 적이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천 상의 눈이 동시에 흔들린 이유는 가루다 때문이 아니었다. 주인의 머리맡에서 멈춰있던 금색의 수레바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미소를 짓는 듯 살포시 올라가 있던 크리슈나의 입꼬리가 스르르 내려갔다.

같은 시각, 난다의 허리춤에 들어가는 사르나트의 바퀴에도 그와 같은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무니 일행이 모래 바람을 뚫고 잠부의 동쪽 끝 바다에 도착한 참이었다. 석양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고 있는 시간이었다. “별써 해가 지잖아. 데비, 이 자식! 내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알아! 왜 자꾸 사람을 찾아다나게 해?” 그러나 데비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말들과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찬 무니가 난다에게 꾸짖듯 말했다. “아무튼 저 자식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 저번에는 열흘이나 사라졌잖아! 재 때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 완전 애물단지라니까.”

“왜 그래! 이름까지 자기가 예쁘게 지어줘 놓고 불쌍한 아이잖아. 게다가 기억까지 잃었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없잖아.” 친구의 말에 다시 데비를 쳐다보면 무니가 말했다. “그리고 보면 신기해. 다른 건 몰라도, 꼭 자기가 사라졌던 자리에 다시 나타나잖아.” 난다 역시 “응”하면서 데비 쪽을 바라봤다. “그런데 말이야. 데비 처음에 봤을 때하고 비교해서 좀 달라진 거 같지 않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달라졌어. 처음에 봤을 때는 한 여섯 살쯤으로 보였던 거 같은데 지금은 한 두어 살은 훌쩍 큰 거 같잖아.” “원래 애들은 빨리 자라잖아.” 무니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 말에 난다가 웃으며 대꾸했다. “너도 애잖아. 왜 내 그대로냐?” 무니보다 목 하나는 더 큰 난다가 괜히 그를 내려다보는 시늉을 하며 놀리듯 말했다. 무니는 “이 자식이!” 하며 주먹을 날리는 시늉을 했다. 그러나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숨이 막힌다는 듯 바다를 쳐다봤다. 아주 멀리, 하지만 선명하게 보이는 수평선 아래

로 천천히 잠겨가던 태양이 이제 막 완전히 사라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깔깔거리는 데비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그들의 귀가에 들려오지 않았다. 밤이 찾아왔다. 난다가 조그만 주머니에서 종이버터를 꺼내 불을 붙이자, 무니가 가방에서 조그만 빵 세 개와 물병을 꺼냈다. 낮에 실컷 풀을 뜯은 칸타가와 남카라고 이름 붙인 또 한 마리의 말, 그리고 팔 짝짝 뛰며 돌아다니던 데비도 불 옆에 와 앉았다. 무니가 난다에게 물었다. “종이버터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응, 아직 걱정 없어. 다만 이 근처에선 재료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껴야겠지. 오늘은 이것만 쓰고 그냥 자자.” 그들은 종이버터를 타닥타닥 타면서 피어오르는 불꽃을 보며 식사를 시작했다. 주위에 파도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무니에게 낯설지만은 않은 소리였다. 언제나 방향을 잘 못 잡아 남쪽 끝 바다에 다다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도 지금 같은 밤이었다. 주위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오늘 저녁과 같

은 광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파도소리와 바다 냄새만은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보니 열음의 성에 갇혀 있을 때는 연못을 바다라고 착각했었지.’ 언제나까지도 생생할 거 같은 그 밤이 떠올랐다. 아주 오래 전 일 같기도 하고, 바로 어제일 같기도 했다. 그때 그의 몸 쪽으로 무거운 뭔가가 툭하고 쓰러져 왔다. 어느 새 잠이 든 데비였다. 그 모습을 본 난다가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널 좋아하는 게 확실해. 그래도 늘 네 옆에 가서 자잖아. 살아나서 처음 눈을 마주친 사람이 너이기 때문일까.” “그냥 내가 만만한 거야. 아무튼 귀찮은 녀석이라니까.” “그래도 데비 때문에 짐 조각은 물론 아무나검까지 찾았잖아.”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건데. 애가 아니었더라도 분명히 찾았을 거야.” 무니는 옆에 놓아둔 짐 꾸러미에서 짐을 꺼내들었다. 입꼬리 마리의 말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칼날이 불꽃을 받아 번뜩였다. 무니는 그 말들의 머리 부분을 하나하나 손으로 쓰다듬어 갔다. 그 하나하나 마다에는 각각 다른 모양의 흠이 패여 있었고 마치

막으로 태양을 새긴 검의 지루 부분에는 다른 것들보다 좀 더 큰 흠이 하나 더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그 흠에서부터 칼자루 끝까지는 마치 빛을 이끌어가는 듯한 느낌의 여신이 새겨져 있었다. 이 아름다운 검은 수리아의 검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이었다. 물론 나머지 검 조각들을 모두 모은 후의 일이겠지만 말이다. 게다가 세상에 단 한 명 뿐인 진정한 연금술사도 찾는 일도 남아있었다. 그 주정뱅이에 도둑질까지 한 나쁜 사기꾼은 분명 아닐 것이다. 칼을 도로 집어넣고 있는 무니에는 언제나처럼 뿔가를 입고 있던 난다에게 말을 걸었다. “그나저나 이제 남쪽 끝인데, 비데하는 어디 있는 거야?” “저번에 말했잖아. 바다 건너라고.” “뭐? 바다 건너? 내가 언제 이야기했어?” “우리가 쿠상의 도서관에서 다시 만났을 때, 난다가 한숨하다는 표정으로 무니를 쳐다봤다. ‘넌 도대체 내 이야기 듣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랬던가. 무니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하긴 그때 자신은 열음의 성 후유증을 심하게 앓던 중이었으니까. “그럼? 그럼 비데하는 어떻게 가? 배라도 타고 가나...” 무니는 뿔가 떠오르는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가웃했다. “아! 그 도둑놈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었구나.” 무니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무슨 말이라는 듯 난다가 그를 쳐다봤다. “아니, 그 가짜 연금술사가 그랬거든.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아냐고 말이야. 그리고는.” “그리고는?” “아니 뜬금없이 너하고 내 나이랑 생일을 물어보잖아.” 그 말에 난다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래서 알려줬어?” “아니! 그런 이상한 놀한테 그런 걸 왜 알려줘? 하여간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무튼 잡히기만 해봐, 내 가만 두나.” 무니는 생각만 해도 또 화가 나는 지 썩씩꿨다. 그러나 난다는 연금술사가 그들의 생일을 물어봤다는 사실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아무튼 그때 내가 가방을 바꿔놓았기에 망정이지. 유리 영감의 공책도 분명 그 녀석이 가지고 있을 거야.” 무니가 자리에 누우며 말했다. 하지만 난다는 다시금 스스로를 연금술사라고 부르던 그 자의 정체가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분명 사기꾼이긴 했지만, 리시의 예언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걸 훔쳐가려 했다는 것은 그가 예사 사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매우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는 정말 연금술사일 지도 몰랐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불 꺼지겠다. 왜 또 한숨이야? 혹시 바다를 건너는 일 때문에 그래? 아까 우리 그 이야기하다 말았잖아.”

사찰양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땅지 많음.
- 대로변에 위치, 통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신 **010-3406-1080**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보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 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계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권련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 1 사찰대중, 전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불족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후우호 기림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석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불자의 긍지 · 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011-870-0021